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24시간 불 밝힌다

1월부터 통합 터미널 본격 운영 지난해 줄어든 물동량 회복 총력 을 235만 TEU 달성 야간 작업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가 24시간 불을 밝힌다. 올해 목표 물동량 235만 TEU 달성을 위해서다.

8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컨테이너부두 활성화와 물동량 확대를 위해 통합터미널 운영과 야간 작업 등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광양항컨부두는 코로나19 여파 등 악재로 지난해 추축했다가 새해 초부터 활기를 되찾고 있다.

지난해 11월 SM상선광양터미널(SMGT)과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GWCT)의 통합 작업이 완료된 이후, 1월부터 통합 터미널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화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 접안해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1만TEU 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이 자주 보이는 등 입항 선

박 크기가 예년과 달라졌다.

실제 지난해 1월 광양항에 기항한 컨테이너선 278척 중 1만TEU급 이상 대형 선박은 9척에 불과했으나, 올해 1월에는 290척 중 21척이 1만TEU급 이상 선박이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1만8000TEU급과 2만1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2척이 동시에 접안에 양적하 작업을 진행하면서 항만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통합 운영사의 가동으로 그동안 야간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던 광양항에서 처음으로 24시간 운영체계에 들어감으로써 불이 꺼지지 않는 항만으로 변모했다.

야간에도 효율적인 검역 시행을 위한 검역대상 화물 이전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야간 컨테이너 화물의 상하차 및 반·출입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공사는 운영사 통합으로 터미널이 2개로 줄었지만 235만TEU 물동량을 문제없이 처리하기 위해 부두 내 ITT(부두 간 화물 이동) 게이트를 설치·운영하고 컨테이너 검수·세척·수리장을 확충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펜데믹 소크와 대형 선사 중심의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인한 물량 이탈 등으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의 물동량은 전년 대비 9%가량 감소했다.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는 지난해보다 8.8% 증가한 235만TEU로 정하고 화물 감소 위기 대응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터미널 운영사와 머리를 맞대고 터미널의 생산성 향상과 배후부지 우량기업 유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올해도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모두가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인 235만TEU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3·2단계 완전 무인 자동화 부두 테스트베드 구축, 배후부지 고정 화물 확대 등 항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가 올해 물동량 235만TEU를 목표로 24시간 불을 밝힌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추진 지자체 힘 모은다

삼일동~서면 간 총 7.3km 양 자치단체장, 추진위 구성 5차 국도계획 포함에 총력

여수와 경남 남해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협의가 본격화됐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권오봉 시장과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5일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관련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 등 공동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여수시와 남해군은 올해 7월 확정되는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원활히 진행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나섰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건설될 경우 전남 여수시 삼일동과 경남 남해군 서면을 연결한다. 총 길이는 해저 4.2km, 육상 1.73km 등 총 7.3km로 6312억원



지난 5일 여수시청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를 비롯해 양 지자체 공무원 등이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국도균형발전과 실질적 동서통합 실현 뿐만 아니라 국도77호선 마지막 미연결 구간 완성을 통해 남해안권 관광산업 전체의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도해해상 국립공원과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하나의 권역으로 합쳐지게 되면 세계적 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 역시 높이고 있다.

권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호영남 화합, 남해안 관광벨트 광역도로망 완성의 의미 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여수시민과 남해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조속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와 남해군은 지난 1998년 여수와 남해를 연결하는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 사업을 건의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미달로 사업이 반영되지 못했다.

여수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 2022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예정), 2026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양시, 치매 안심도시 박차 심터 설치·약제비 등 지원

광양시는 치매 안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치매안심 사업은 치매심터(분소) 설치와 치매 환자 전원 약제비 지원, 치매안심 마을 조성, 치매 전담인력 채용과 민간인 치매전문지도자 양성 등이 핵심이다.

치매심터는 2019년 전남도 공모사업인 ‘폐교 활용 치매심터 설치사업’에 선정되며 진상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치매심터(백학동 기억센터)로 조성했다.

전체의 경관을 자랑하는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심터에서는 각종 시설과 장비를 구비해 치매 노인들의 인지재활 훈련뿐만 아니라 고령의 노인들에게 다양한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6743㎡ 규모의 큰 학교부지를 이용해 산책과 운동, 원내작물, 텃밭을 이용한 치유농장의 기능을 할 수 있어 심터 기능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용차량을 운행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치매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고 있다.

치매 어르신 전원료에 대한 약제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광양시가 유일하게 시행하는 시책 중 하나이다.

치매 노인인 가족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초기치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중증으로 이행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효과가 높다.

지난해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747명이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았으나, 소득기준 초과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203명의 치매환자들이 약제비 지원을 받았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군,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사업 선정

전남 유일...복내 5일장 상점 활용 복합카페 운영

보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창업 공간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해 농촌의 일자리 창출·활력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전국에서 10개소가 선정됐으며, 전남에서는 보성군이 유일하다.

보성군은 사업 선정으로 복부 4개 면의 유일한 전통시장인 복내5일시장 내 비어있는 상점을 활용해 지역 특산품과 전통차를 함께 판매하는 복합 카페를 만들 계획이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사업은 개소 당 4억5000만원 내외의 리모델링 사업비가 지원된다.

보성군은 이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변 관광지인 주안호생태습지, 주안호생태관, 천연염

색염에탄 등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와 농촌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한국천연염색 습의 심향란 관장은 “천연염색과 명품 보성 삼베를 살리고, 6차 산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농가 레스토랑,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농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